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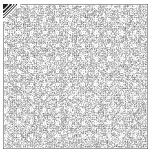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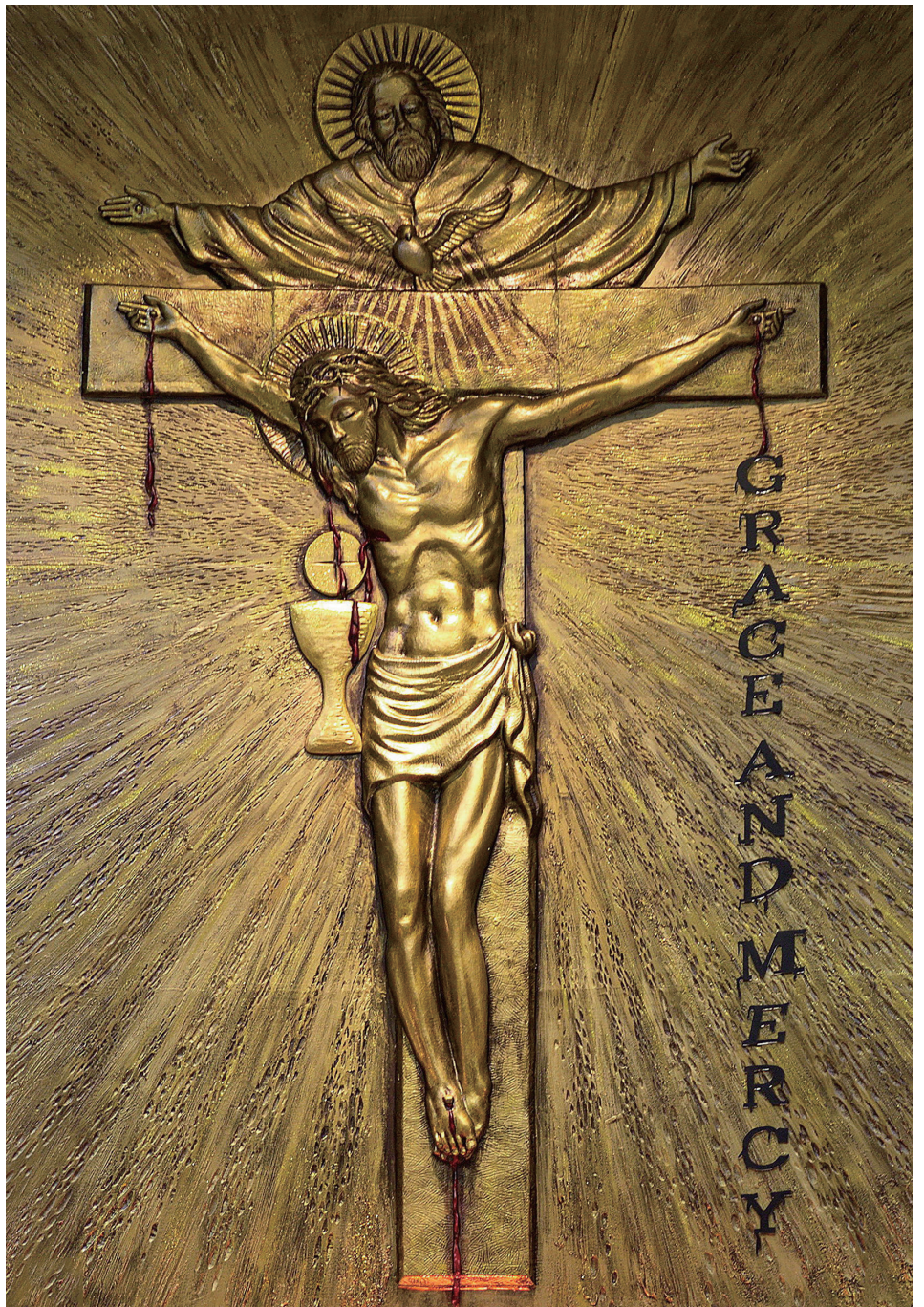
2022년 3월 13일(다해)

사순 제2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27(26),8,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 창세 15,5-12,17-18

화답송 | 시편 27(26),1,7-8,9,13-14(◎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만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 필리 3,17-4,1<또는 3,20-4,1>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루카 9,28ㄴ-36

영성체송 |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멍 때리기

몇 년 전부터 ‘불멍’, ‘물멍’, ‘산멍’, ‘술멍’ 같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위로받는다든 것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우울증 징후를 보이는 많은 이가 위로와 휴식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시대적 징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신앙 안에서 ‘멍 때리기’, 특별히 사순 시기 동안 영적 위로와 휴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제1독서(창세 15,5-12,17-18)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창세 15,6) 믿음과 희망의 인간,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단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후손과 땅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꽃 피우게 합니다.

한편 제2독서(필리 3,17-4,1)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필리 3,20)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필리피는 여러 특권이 부여된 도시였는데, 바오로는 필리피인들에게 세속적 특권에 안주하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리라 격려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필리 4,1)이라고

덧붙이며, 바오로는 필리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재확인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신뢰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루카 9,28-36)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를 다룹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기도 중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뒤, 구약의 예언자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깨어납니다. 그들 중 베드로는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루카 9,33)라며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될 텐데, 베드로는 마치 이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변모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거쳐 완성하실 부활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희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순 시기 동안 신앙인들이 ‘멍 때리기’ 할 수 있는 화두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사랑과 희망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걸어온 인생 여정에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껴보는 것, 그리고 일상 속 ‘소용돌이’와 거리를 두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 잠시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와 휴식을 찾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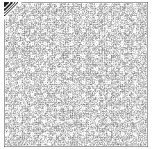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35)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닥칠 고난을 미리 예견하며, 기도하러 떠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며 그리스도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것을 십자가상 앞에서 다짐합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홍찬미 글로리아 | 싱어송라이터

| 그녀를 위해 노래해 주세요

제게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감수성 깊은 이 친구는 일상의 사소한 장면도 놓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꽃 한 송이를 발견해도 “어마! 저건 (누구누구)를 닮았다. 소중한! 그렇지?”라고 외치며 두 눈을 반짝이곤 하지요. 또 친구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영혼 깊이 음미하며 간직해 온 복음의 구절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풀이해 저에게 들려주기를 좋아합니다. 매사에 열정적으로 감탄할 줄 아는 친구를 둔 덕분에 저의 일상은 한층 밝아졌고, 그가 나눠준 별빛 같은 말들이 제 마음을 밝힐 때마다 저는 세상과 하느님에 대해 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에 비하면 아주 무뚝뚝하고 평범한 사람이라, 우리가 같은 온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음을 친구는 종종 슬퍼했습니다.

한번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다 ‘Her Song’ (허 송)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썼습니다. 다른 시선과 언어를 가진 친구를 통해 저의 세상이 좀 더 넓어진 일을 떠올리며 제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지요. Make a song for me / Many of them / Simple song for me / Words are for-give (나를 위해 노래를 써주세요 / 많아요 / 간단한 노래면 돼요 / 말은 내어주기 위한 거니까요)

한편으로 이 노래는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 노래하는 일을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Her Song’의 화자는 그녀(he)인데, 저는 ‘그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존재들을 함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과 성 소수자, 그리고 억압받고 그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세상의 모든 존재. ‘노래를 써 달라’는 말은 곧 세상 모든 그녀/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는 말입니다. 언어가 필요한, 아니 어쩌면 언어가 있어도 아무도 제대로 귀 기울여주지 않는 모든 존재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감히 제

가 ‘그녀’가 되어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걸어 올린 언어를 통해 무수한 그녀/그를 목격하고 또 정확하게 드러내는 일이 오늘날의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작업은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감응하는 속도가 느린 저와 같은 사람도 하느님과 자유롭게 통교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마음의 감각을 다시금 일깨운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존재(타자)를 향한 사랑의 여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제 친구 이야기로 돌아와, 서로 다른 우리에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통의 어려움(어쩌면 두려움일지도)을 넘어 서로 진심으로 마주하여 대화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제가 들려준 ‘Her Song’이 친구에게는 얼마나 새로웠던지 오늘도 친구는 느낌표로 가득한 이야기꽃을 저의 마음 밭에 가득 피워주고, 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진심으로 친구의 이야기를 따라 웃음꽃을 피웁니다.

한컷 묵상

다독
우리는 하나님의
시인입니다
2022.13.20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9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행복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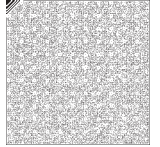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날 수 셀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우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시편 89,12 최민순 역) ‘날 수 셀 줄 알아야’ 인간은 지혜와 슬기를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날 수를 헤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젊고 힘 있고 즐거울 때는 하느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지나온 날과 남은 날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내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깨닫는 것이고, 죽음이 다가오면 인간은 철이 듭니다.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날 수 셀 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날 수 셀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기쁘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작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작은 손해에 맘 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하느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기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고 교회와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가깝고도 멀게 느껴집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공통으로 느끼는 두 가지 행복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거의 모든 사람은 좋은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둘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한다면, 우리 역시 눈물 나게 행복할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

님은 공감하실 것이고, 하느님께서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며 희망한다면, 하느님께서 행복해하시지 않을까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산타 마리아 성당 광장에는 ‘Pax et Bonum’(평화와 행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평화와 행복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행복을 통한 평화! 행복을 가져다주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평화를 뜻하는 영어 peace의 동사형은 pacify인데, 이 단어의 대표적인 뜻은 ‘평정하다’입니다. 즉, Pax가 의미하는 평화란 본래 남을 정복해서, 상대방을 굴복 시켜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Pax Romana(팍스 로마나), Pax Americana(팍스 아메리카나) 등의 예처럼 힘에 의한 평화가 바로 Pax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평화(Pax)란 절대자, 즉 하느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순종하여 얻는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요한 1,9) 행복을 밝게 보여주는 빛, 즉 ‘말씀’(Verbum)이라는 빛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들을 수 있고, 밤하늘의 별처럼 주변이 어두워야 더 잘 보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얻는 평화가 그리스도교인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행복의 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고, 행복한 삶의 과정이고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Dona nobis pacem!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거짓말도 당당한 사기꾼, 야곱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신부님,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 사건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한 변호사가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혹시 폭행? 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예요.” 사기가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믿음을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맺은 인연을 잃기 십상입니다.

야곱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나 세속적인 삶 모든 것에서 열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 에사오는 야곱과 태어날 때부터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신체적 특징은 물론 내면적으로도 에사오가 외적인 열정이 있는 외향적인 인물이었던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신중하게 지내는 내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너무 달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 이사악은 사냥을 잘하는 에사오를, 어머니 레베카는 조용하고 신중한 야곱을 더 마음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편애는 형제가 성장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의식을 과열시키고, 자녀들이 예상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전혀 인지하지 못해도 형제자매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편애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처를 안겨주고 평생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가 졌을 때 야곱이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보고 조금만 달라고 사정합니다. 야곱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죽을 주는 대가로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야곱의 기만

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야곱은 자신에 사오인 것처럼 위장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파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끝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창세 27,19-20)

야곱은 자신을 해치려는 에사오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 비해 한수위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마음을 간파해서 자신의 두 딸, 라헬과 레아와 맺을 결혼을 미끼로 아주 오랫동안 그를 자신의 곁에 붙잡아 놓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입장으로 바뀌자 억압된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식솔과 재산을 챙겨 고향으로 몰래 돌아갈 때 라반은 뒤쫓아가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때 야곱은 억눌러있던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목표를 이루려는 욕심이 지나치면 인간은 거짓과 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두려움은 가졌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야곱은 그간 자신의 행동도 모두 합리화하고 자신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무장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생각하기에 거짓말을 할 때도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은 어느새 나쁜 습관이 되어 버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정당화 시켜 공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 25,19-33,20 참조)



아르보 파르트 | 사진출처: arvopart.ee

음악칼럼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내는 음악, 아르보 파르트 <거울 속의 거울(Spiegel im Spiegel)>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을 한 번쯤은 보셨겠지요? '거울'은 순전히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한 사물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상징하는 것은 자신을 비추어보고 돌아보는 '자기 성찰'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시 <참회록>에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는 표현으로 거울이 자아 성찰의 도구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시인은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오욕의 역사를 살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훗날 자신의 슬픈 모습도 거울을 통해 그려보죠.

윤동주의 시에서 만나는 거울만큼이나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음악에도 있습니다. 올해 87세인 현대 작곡가 아르보 파르트(Arvo Pärt, 1935년~, 에스토니아)의 <거울 속의 거울 (Spiegel im Spiegel)>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아르보 파르트가 바이올리니스트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Vladimir Spivakov, 러시아)의 의뢰를 받아 1978년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독주를 위해 작곡했습니다. 원곡은 바이올린을 위한 곡이지만 이후 바이올린뿐 아니라 첼로나 비올라로도 많이 연주됩니다. 현대음악임에도 귀에 순하게 와 닿는 서정성, 단순하지만 독특한 음악적 흐름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각종 영화, TV, 무용, 연극에서 배경이나 효과음악으로 수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음악은, 리듬이랄 것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단순하게 세 음씩 연주되는 피아노 반주에 느릿느릿 끄는 듯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이올린 멜로디가 곡의 거의 전부입니다. 때때로 피아노가 세 음에서 벗어나 왼손으로 낮은음이나 높은음을 한 번씩 쳐주는 정도죠. 이 곡에 대한 음악적 해설은 '미니멀리즘'(Minimalism, 제한적이거나 최소한의 음악적 소재를 사용하는 음악으로, 반복적인 패턴이나 리듬 등이 지속

되는 것이 특징)이라든지 아르보 파르트 특유의 작곡 기법인 '틴틴나불리'(Tintinnabuli, '종'을 뜻하는 라틴어로, 아르보 파르트가 서양의 중세와 르네상스 성가에서 받은 영향에서 착안.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삼화음을 구성하는 세 개의 음이 마치 종소리(종의 울림) 같다고 표현하며 붙인 명칭)같은 전문 용어로 설명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이 음악에 대한 설명은 단순함 속에 담긴 순수함과 명료함, 영성적으로 다가오는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단순한 이 음악은 우리를 한없이 가라앉게 만드는 듯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잡념에서 벗어나 순정한 마음으로 음악 자체를 들여다보게 하고, 결국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나란히 마주한 거울에 맺힌 상이 서로 반사되면서 거울 속 거울에 끝없이 형성되는 것처럼, 다가오다 멀어짐을 반복하듯 연주되는 선율과 리듬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음악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영혼이 가벼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명상을 넘어 영적인 시간을 만나고 난 느낌입니다. 묵상과 참회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음악이 있을까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자주 가지게 되는 사순시기에 아르보 파르트의 <거울 속 거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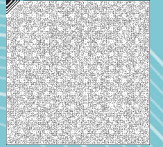


바이올린 연주
[바이올린: 르노 카뤼송, 피아노: 기욤 벨름]





첼로 연주
[첼로: 레온하르트 로체, 피아노: 헤르베르트 슈흐]



과학과 신앙 간의 부적절한(?) 접목 시도의 예 1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지난달의 글을 통해 제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과학과 신앙은 둘 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엄마로부터 함께 탄생한 쌍둥이”입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섬긴다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강론이나 서적을 통해 과학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예로 드는 이러한 강론이나 신앙 저서 중에서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 들어간 경우들이 간혹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의 견해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선 사목을 하시는 분들과 신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강론이나 신앙 저서 중에는 과학에서 발견된 특정 현상을 통해 초자연적 실체나 초자연적 능력을 강조하는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위 ‘뉴에이지 운동’의 주장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외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는 책인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모토 마사루, 2002년 출간)입니다. 이 책은 소위 세기말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개념인 우주적 기운, 우주 에너지, 정신 에너지 등이 아름다운 물 결정 사진과 ‘사랑과 감사’를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채택한 책이죠. 하지만 이 책은 다른 과학자들의 다양한 반복 실험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저자만의 실험 사진과 주장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내용이 아니라 유사 과학적 내용을 담은 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써놓은 통과 나쁜 말을 써놓은 통에서 언 얼음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좋은 말을 써놓은 통 쪽은 얼음 결정이 예뻐고, 나쁜 말을 써놓은 통에서 언 얼음은 결정이 못생겼다. 왜냐하면 물은 46억 년간 지구 상에 있었기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안다.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줄이면서 물을 통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자. 우리의 몸도 70%가 물이기에 물과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할수록 몸에 좋다.”

하지만, 물질의 상태와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 특히 저를 포함한 물리학자들이 에너지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개념 안에는 좋음과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사랑과 미움 등 감정이나 윤리와 관련된 가치까지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연과학의 관점에서는 물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물 결정이 추하게 변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으로 보이는 언어와 개념이 제법 쓰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건강 이슈와 영육 일원론’이 적절히 결합된 뉴에이지 계열의 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한식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한식 성묘 안내** / 미사: 4월 6일(수) 오전 10시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 (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3월 14일(월)부터 선착순 자리배정(1매 2만 원-좌석 띄어 앉기로 인한 조기 마감 및 차량비 변동 가능)
 마스크 미착용 시 차량 탑승 및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사 참례 인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 6일(수)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미사 참례, 봉안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사 참례 인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미사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1년 3월 15일 이용유 베네딕토 신부(36세)
- 1983년 3월 14일 박성중 프란치스코 신부(60세)
- 2005년 3월 17일 백은기 라파엘 신부(66세)



서울대교구 어플리케이션 '가톨릭서울' 안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은 본당 커뮤니티 활성화와 개인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본당단위로 운영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톨릭서울'을 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가입 방법과 이용 방법은 유튜브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다운로드 방법: ①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 검색창에 '가톨릭서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구청알림

2022년 1차 온라인 전례학교(이론)

대상: 전례봉사자
때: 4월1일~5월31일(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회비: 2만원(접수 및 입금 3월25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라는 고유한 역할 수행을 돕고, 노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를 개설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5~7세의 손자녀를 둔 조부모, 120명
교육일시: 4월4일 · 11일 · 25일, 5월2일 · 9일, 16일 · 23일 · 30일 (월) 오전 10시~12시30분(총 8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교육내용: MBTI 검사와 작업, 손자녀 발달 이해와 공감, 자존감 키우기, 전해줄 신앙 이야기, 죽음 준비, 노후재정과 건강한 노년
회비: 9만원(MBTI 검사비 포함)
입금계좌: 우리 1005-201-140646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신청기간: 3월21일(월)까지 접수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https://senior.catholic.or.kr>)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 02)727-2385, 2386 노인사목팀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및 모임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3월19일 10시30분
곳: 명동성당 옆 영상센터 경당(상설고해소 건물)
문의: 02)318-3079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09차 미사 3월1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대신리 본당, 관후리 본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홍봉주 토마스'
때: 매달 셋째주(화) 3월15일 오전 10시(172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마음 돌봄 프로그램

기본과정 (택1)	3월23일(수) 10시~17시, 전진상 영상센터(명동)
	3월26일(토) 10시~17시, 노동사목회관(보문동)

피정(1박 2일) 4월2일(토) 14시~3일(일) 12시, 관매뜰알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회비: 기본과정 1만원, 피정 3만원
신청기간: 3월2일(화)부터 기본과정 전일, 피정 3월25일(금)까지 / **문의(접수):** 02)924-2721, 2 노동사목위원회(홈페이지 참조)

서울대교구 소방관 가족 온라인 기도모임 안내

접수기간: 3월14일(월)~25일(금) / **지도:** 강혁준 신부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대침묵 피정

주제: 내면의 아이의 회복 / **강사:** 문종원 신부
때: 5월20일~22일(2박3일)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모집

한국스카우트 · 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서울지구연합회
대원: 서울대교구 본당 주일학교 학생(6~18세)
지도자: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성인
문의: 02)762-9857 (화~토 8시~17시)
 (부재 시 이메일 문의: seoulscout@catholic.or.kr)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신경미 이콘전: 1전시실
김혜숙 칠보전: 2전시실
 2022년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김하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9일(수)~21일(월)

온라인 사목위원회 양성연수

대상: 사목협의회 회장단, 사목위원
교육: 줌(Zoom) 온라인 실시간 강의
때: 1차 4월1일(금), 2차 4월2일(토) / 1, 2차 교육 내용 동일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3월 25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고요 속의 현존 피정(소그룹)

때, 곳: 3월18일(금)~20일(일), 황성 카타리나 피정집 (주최,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 문의: 010-9715-1203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곳: 3월25일~27일·4월22일~24일(2박3일), 명상의 집(우이동) / 개인 피정(수시) 별도 문의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심화 피정

때, 곳: 4월28일(목)~5월1일(일), 수리치골 성모성심의 집
회비: 35만원(1인실, 32명) /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접수): 010-8599-312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3월25일~28일·4월8일~11일·5월20일~23일·6월17일~20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때: 4월14일(목) 16시30분~17일(일) 13시30분
곳: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주최)
회비: 29만원 /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1차	4월22일(금)~30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02차	5월20일(금)~28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3월19일~21일, 4월18일~20일
성지순례 피정	3월26일~29일, 4월2일~5일, 4월9일~12일, 4월23일~26일, 5월5일~8일

전·진·상(全·眞·常) 위로와 치유의 소그룹 피정2

강사: 이수연, 김광숙(AFI 회원·AMR 테라피스트)
때: 4월1일(금)~3일(일) 2박3일 / 문의(접수): 02)326-6000, 010-6711-5058 국제가톨릭형제회(A.F.I)곳: 전진상센터(합정동) / 회비: 10만원(5명 선착순 접수)

4월1일	기쁨이 감동처럼 나에게로
4월2일	나와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사랑의 시작
4월3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몸·마음·영혼의 치유

침묵·대월기도 영성수련

때, 곳: 3월25일(금)~27일(일)·4월8일(금)~10일(일)·4월15일(금)~17일(일)·4월27일(수)~5월1일(일) 4박5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주최) / 문의: 032)465-0835
홈페이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 1) 성모신심피정
내용: 강의·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3월15일(화) 오전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 2) 평화의 모후 청년 셀모임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7510-4820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3월30일~4월1일, 4월4일~6일, 4월10일~12일, 4월19일~21일, 4월24일~26일, 4월30일~5월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사순시기 걷기 참가단 모집

스마트폰 내려놓고 기도하며 걷기-하루 6천보
때: 3월2일(수)~4월17일(일) / 대상: 누구나
사순시기 매일 6천보 이상 걸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문의(접수): 010-3262-6823
천주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네이버카페: 천주교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3월22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1단계-청년반 개강 때: 4월26일(화) 14시·4월27일(수) 19시·4월26일(화)-청년 저녁반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온라인 '말씀여행' 모임에 초대합니다

예수님 알고 사랑하기 / 대상: 수도자, 평신도
때: 3월부터 수시 접수 / 영적동반: 강우일 주교
문의(접수): 010-2231-2074 한국통합사목센터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쉬운 전례 이야기(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내용: 전례시기, 사순, 부활전례 등
대상: 40세 미만 미혼 남녀 / 방법: 비대면(Zoom)
때: 3월19일부터 매주(토) 5회
회비: 3만원 / 문의: 010-9816-0072(pddm.or.kr)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반

때, 곳: 3월30일~4월13일 (수) 14시~17시, 한국음악치료연구소 (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3월15일~4월5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접수: 3월31일(목)까지 우편접수 가능

바로로 교육관 특별강좌(영화 속 하느님)

강의: 십계명 in 시네마 / 강사: 박 베로니카 수녀
때: 4월7일~7월14일 (목) 19시30분~21시
곳: 명동대성당 성모동산 뒤 바로로 교육관
대면강의입니다(접종 완료자만 접수 가능) / 회비: 7만원
문의: 010-4229-7894 샬트르성바로로수녀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주제: 가톨릭 사상사(교회의 대사회적 가르침-교황문헌을 중심으로) / 강사: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때, 곳: 3월11일~6월10일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총13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 명례방(B1)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30%할인)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사무실

블링블링 르네상스인 이야기 강좌

내용: 르네상스 시대 사람과 그림, 요리 이야기
강사: 박원희(로마국립미술원 장식미술과 졸업)
때, 곳: 4월5일(화)~8일(금) 개강, 총6회 강좌 진행-화요일반 14시~16시·목요일반 19시~21시·금요일반 11시~13시(주1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회비: 15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8441-3013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마리아학교 온라인 수강자 모집 및 피정

- 1) 온라인 수강자 모집
내용: 구원역사 속의 성모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때: 3월28일 개강, 매주(월) 14시~16시(6개월)
문의: 010-9620-4820 서울 마리아학교
- 2) 주님 탄생 예고 묵상 피정
때, 곳: 3월21일(월) 9시30분~13시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내용: 강의, 묵상, 미사

바로로말 헤화나무 아카데미 현장 및 온라인 강좌

문의(접수): 010-9759-0882 / 회비: 각 강좌당 15만원
온라인: 네이버 밴드 실시간 시청(이후 수시 시청 가능)

성숙한 신앙과 리더십을 위한 철학 선택	4월7일~6월9일 매주(목) 19시(8주간)	김이균 신부
문학과 종교	5월10일~6월21일 매주(화) 19시(7주간)	최대환 신부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예수회 특별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

강의 주제: ① 죽음 너머의 삶과 세상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 ② 거장들의 예술이 비추는 인간의 심연 ③ 신앙의 길, 사랑의 법 ④ 영적성장 과정에서 대면하는 심리적 이슈들 외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영성적 주제들 / 강사: 홍기령 교수, 임숙희 박사, 주원준 박사 및 예수회 사제(송봉모·최시영·이규성·이훈)
 현장 강아: 3월22일 개강, 매일 둘째·넷째주(화) 오전 10시~12시(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 동영상강의 링크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정기단원 모집

오디션: 매주(금) 오후 7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 010-3733-6526

수아비스 합창단(서울대교구 인준) 단원 모집

오디션: 매일 첫째주(월) 19시30분 연습 후 자유곡 1곡
 연습 장소: 공간 음악(전철 7호선 장승배기역)
 문의: 010-7151-9831 단장

미사

살레시오와 꿈 후원회 월례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3월14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205-3호)

평화모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모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2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모주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곳: 4월2일(토) 오전 11시, 평화모원(내) 봉안당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 문의: 02)2241-7841, 2

인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제주도 관광

제주주전자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회원 및 봉사자 모집

0~7세 장난감도서관 시설 이용, 대여 가능
 봉사자: (월~목) 13시~17시(컴퓨터 사용 가능)
 봉사업무: 시설 이용, 대여, 반납 관리
 문의: 02)2658-6522 복지3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esort.modoo.at
 문의: 041)934-7758, 010-3076-7489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상치입은 마음치유와 자아 및 관계 회복 3월19일~4월30일 매주(토) 14시~17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등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나의 인생이아가-전생애 발달심리학 3월18일~4월15일 매주(금) 10시~12시(5주)
 의 이해와 중년기(과거·현재·미래)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상담,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직원모집

음성꽃동네노인요양원(구원의집) 직원 모집

분야: 요양보호사 / 조리원 수시 모집
 기숙사 사용가능 / 043)879-0225, 0238(www.kkotnoin.or.kr)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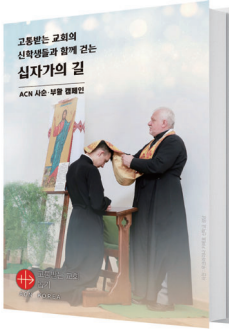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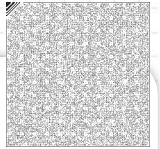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사업기획 및 영어능통자, 아시아 지역학·국제 교류 관련 전공자 우대 / 이메일 문의
 분야: 사무행정 담당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및 면접, 2차 최종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3월20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3월20일(일) 15시	본원(사당동)	010-5920-6367 기 헬레나 수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65	0507-1306-1505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성북구 장위동)	02)941-4139, 010-8563-6875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3월20일(일)	비대면(Zoom)	010-9816-0072(pddm.or.kr)
예수성심전교수녀회·수도회	3월18일(금) 20시	온라인(Zoom)	010-3241-310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3월19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투스팅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회	수시	본원(돈암동)	010-8191-0377(www.benedict.or.kr)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3월20일(일) 14시~17시	가톨릭회관 311호	010-9620-4820
한국외방선교회	4월3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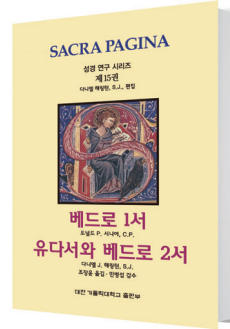


신간

고통받는 교회의 신학생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사)고통받는교회동기한국지부 지음
(사)고통받는교회동기한국지부 | 36쪽
무료배포 | 문의: 010-7475-6440

ACN은 1만 4천여 명의 아프리카, 인도, 베네수엘라 등 가난한 나라, 고통받는 교회의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교육과 안전,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두운 현실에서 작은 촛불이 되려 하는 신학생들과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도록 도와준다.



신간

성경 연구 시리즈 제15권
베드로 1서, 유다서와 베드로 2서

도널드 P. 시니어, 다니엘 J. 해링턴, 지음
대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488쪽
2만5천원 | 문의: 02)762-1194

교회는 항상 어떤 위기를 동반해 왔다. 외부(베드로 1서에서처럼) 그리고 내부에서(유다서와 베드로 2서에서처럼) 오는 위기가 있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세 편의 짧은 신약성경 서간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대면했던 이런 종류의 문제와 아울러 수사학적 기교와 신학적 개념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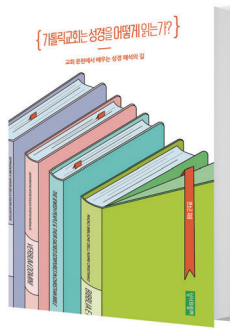


신간

바로 오늘: 성삼일-부활 묵상

기스베르트 그레사케 지음
성서와함께 | 88쪽 | 7천원
문의: 02)822-0125

교의신학자인 그레사케 신부는 바티칸 라디오 독일 지부의 부탁을 받고 성삼일과 부활에 대해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담았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사건들 속으로 들어가 구원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열려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고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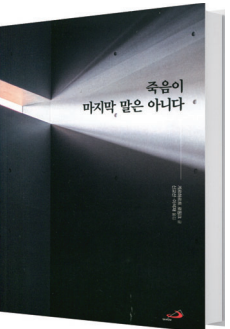


신간

가톨릭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안소근 지음
성서와함께 | 236쪽 | 1만5천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은 이천 년 이어온 가톨릭교회의 성경 해석 정신을 밝히고 실제 예를 다양하게 담은 교회 문헌 네 권을 풀어 소개한다. 그 여정에서 폭넓은 통찰과 함께, 궁금해하던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까지 새롭게 보게 되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신간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 지음
성바로 | 64쪽 | 6천원
문의: 02)945-2572, 010-2572-1365

이 세상과 우리 삶의 역사는 어떤 결정적 의미를 지니고 끝나는가, 아니면 무의미하게 끝나 버리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구하며 저자는 책을 마무리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이들에게 믿는 이로서 누리는 희망 가득한 위로를 안겨 줄 것이다.



공연

서울시합창단 '봄별 그리운 그곳'

공연일시: 4월 15일(금) 19시30분, 세종M씨어터
입장권: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02)399-100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10% 할인(어린이 및 청소년 50% 할인)

신임 단장과 함께 시작하는 서울시합창단 M컬렉션 시리즈 작품성과 예술성 등 음악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 중심으로 1부, 여러 작곡가의 소품곡을 다룬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고 균형 있는 레퍼토리와 완성도 높은 연주력으로 합창의 매력을 노래한다.

◎ 명동대성당 미사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일요일 미사 참여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성전 입당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별도로 적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일요일	07:00~20:00	사무실 폐문

◎ 명동대성당 선교부 신입부원 모집

예비신자들이 세례 받기 위한 6개월 교육기간 동안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지원해줄 수 있는, 하느님 사랑과 성실함을 갖춘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진 25~40세 교우

·활동 : 매월 시작되는 예비신자 교리반 담당 (예비신자 출결 및 교육과정 전반 관리) 및 환영식, 세례식, 받아들이는 예식 등

·시간 :

교리반 봉사 - 토요일/주일 중 1일 (6개월 고정)

☞ 토요일 오후 3시~6시

☞ 주일 오전 9시~12시 또는 오후 3시~6시

·받아들이는 예식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낮 12시~

·세례식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청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조

·기한 : 3월 19일(주일)까지

·문의 : 예비신자 교리학교 ☎ 3407-3914

※신청서 접수 후 신부님·수녀님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되며, 면담 후에 봉사 여부 최종 결정됩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9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문의 : 자모회장 ☎ 010-5514-3002

▣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

(교무금을 은행에서 송금 또는 자동이체하실 경우)

현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교무금(감사헌금·기타헌금) 입금액이 다수 있습니다. 교무금(감사헌금·기타헌금)을 은행을 통해 납부하신 적이 있거나 매월 자동이체 중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내방 가능하신 분들은 납부하신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송금인의 성명과 더불어 생년월일(6자리)까지** 기재하여 송금(자동이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2. 또는 교무금 통장 앞면에 있는 **신자 개인번호**를 기재해 주셔도 납부자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말일은 송금(자동이체)을 삼가해 주세요!**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 오는 데 주말이 끼어 있을 경우 약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5월 교무금을 31일에 송금(자동이체)하실 경우 6월분 교무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헌금을 포함하여, 성당 사무실에서 책정하신 **교무금 납입금액과 송금(이체)액이 다른 경우** 필히 성당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새벽미사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모집대상 :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로서 평일 및 주일 아침 7시 미사의 해설 및 독서 전례 봉사가 가능한 교우

·접수마감 : 4월 24일(주일)

·지원문의 : 단장 ☎ 010-3170-7878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대 상 : 세례를 받은 35~45세 교우

·문 의 : **평화의 모후 Cu.**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참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합 진행 중 (추후 대면 회합 진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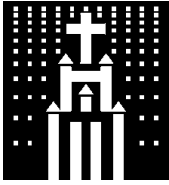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 명동대성당 청년 레지오 마리아 신입단원 모집

·입단자격 : 20세 이상 34세 이하 가톨릭 신자

·신청기간 : 상시 모집

·지원방법 : 카카오톡 채널 '명동 청년레지오' 추가 후 1:1 문의 내 '입단 신청'

·비 고 : 한 달 단위로 신청자분들을 모아 참관이 진행됩니다.



774-1784(TEL)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미사 안내 》

3월 26일(토) 오전 10시 미사는 '안중근 토마스 의사 순국 112주기 추모 미사'로 봉헌됩니다.

◎ 사순 시기 판공성사

※재의 수요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판공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하며, 아래 안내된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을 참고하시어 판공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를 보신 후에는 교적에 성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사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성사표 없이 성사 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은 내방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화~금	11: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1:00 ~ 19:00	
주 일	10:00 ~ 19:00	

※월요일 고해성사(13:00~17:00)는 '성직자·수도자'만을 위한 고해성사입니다. 일반 신자는 상기 표에 안내된 요일·시간에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설 고해소는 대성전 뒤 성모동산 오른쪽에 위치한 '영성센터(옛 계성여고 건물)' 안에 있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1월 14일부터 적용)

·언어 :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금요일	16: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5:00 ~ 17:00	
주 일	08:30 ~ 08:50	대성전 고해소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취소

사순 시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성전에서 다 함께 봉헌하던 「십자가의 길」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성전 개방시간(월-금 11:00~16:00)을 이용하시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 첫 고 해

2월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간 첫고해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한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고해성사 후 세례식 사진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 3월 15일(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인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적용)

3월 4일(금)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3월 5일(토) 0시부터 3월 20일(주일) 24시까지 적용되는 본당 세부지침입니다.

▣ 평일미사 · 주일미사

☞ 백신 접종 여부 및 교적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70% 이내 입장

미사 참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선착순으로 줄을 서 대기하셨다가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성당 전체 개방 : 매일 오전 6시 30분 ~ 오후 9시

▣ 대성전 개방 : 월~금 오전 11시 ~ 오후 4시
주 일 오후 1시 ~ 오후 3시
(※토요일,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미개방)

▣ 지하성지 개방 : 매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2월 28일 ~ 3월 6일 : 130,000원)
누계 : 2,912,985,423원

이 윤 성 : 100,000원 | 익 명 : 3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2/28-3/6).....33,440,700
 - 사순 제 1 주일 현금.....17,440,000
 - 감사헌금 (2/28-3/6).....1,253,000
- 고 니콜라오 / 김 미카엘 / 김 안드레아
김 요안나 / 박 안드레아 / 박 프란치스코
백 안나 / 백 안젤로 / 이 가브리엘라
이 사라 / 임 사무엘 / 최 로사 / 최 안나